

제 7 주제

**당진-대전,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향후 전망과 발전과제**

임 성 복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강 영 주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당진-대전,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향후 전망과 발전과제

대전발전연구원 | 임성복 책임연구위원 · 강영주 연구위원

1. 머리말

- 최근에 개통된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와 서천-공주간 고속도로는 지역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지금까지의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가 지역적으로나 공간구조상으로 볼 때 수직적이고 통과적인 의미의 다소 하드웨어적인 교통인프라의 특성을 가지면서 충청지역내의 물류 흐름이나 소통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다면, 이번 두개의 고속도로 개통은 수평적이고 네트워크가 강조되는 소프트적인 교통인프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들 고속도로들이 앞으로 보다 긴밀하게 공간적으로 연계되어 지역발전을 이끌 것으로 크게 기대됨
- 두개의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대전, 공주를 중심으로 당진, 서천간 통행시간이 평소보다 30분 내지 1시간 가량 줄어들어 관광통행은 물론 지역의 산업 활동도 활성화되어 충청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의 개통은 교통거리와 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그 영향권에 사회·경제·문화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특히 두개의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충남 서북부권과 서남부권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며,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이 글에서는 당진-대전,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개통이 해당 지역과 충청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전망하면서 충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효과가 가시화되고, 그에 따라 산업·경제적인 발전은 물론, 지역문화의 성숙된 변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전과제들을 제시해 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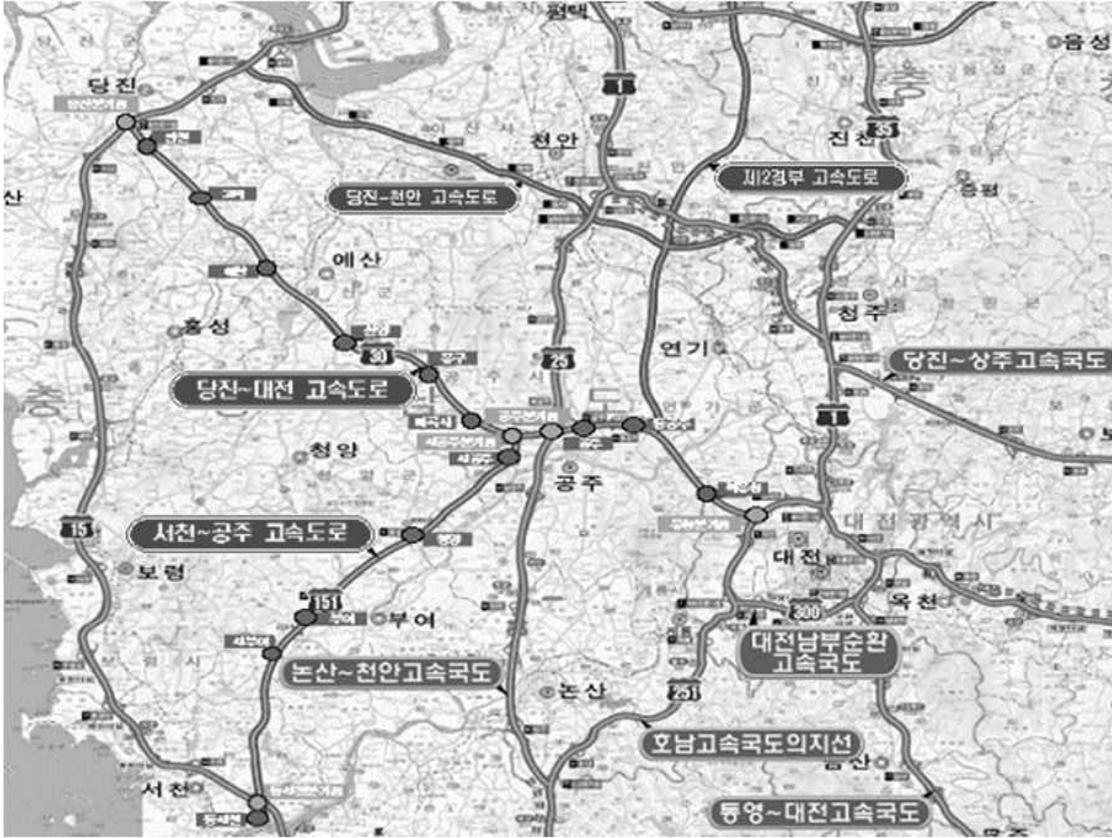
- 이와 함께 지역민들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역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상생의 기조 속에서 협력적으로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추가적인 과제들을 고민해 보고자 함

2. 당진-대전,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개통의 의의

1) 당진-대전,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개요

□ 사업개요

- 고속도로 길이는 당진-대전(91.6km), 서천-공주(61.4km)로 양 고속도로 건설비용 총 2조 6,85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
 - 당진-대전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된 당진 갈림목을 출발해 예산과 공주를 거쳐 대전(호남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구간으로, 유성 갈림목까지 총 91.6km(종전의 117.0km(국도 기준))임. 고속도로 개통으로 해당구간은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시간이 단축됨
 - 서천-공주간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와 만나는 동서천 갈림목을 출발해 부여와 청양을 거쳐 당진-대전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서공주 갈림목까지 총연장 61.4km(종전의 78.7km(국도 기준))로, 시간단축효과는 1시간 20분에서 40분으로 약 40분이 단축됨



<그림> 당진-대전,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 당진-대전간 고속도로는 면천, 신양IC 등 9개 나들목과 서해안, 호남고속도로 등과 연결되는 3개 분기점(JCT)으로 구성됨
 - 총연장 길이 91.6km(4차선 국도) : 당진군 당진읍 사기소리-대전 유성구 하기동
 - 9개 나들목 : 면천, 고덕, 예산, 신양, 유구, 마곡사, 공주, 동공주, 북유성
 - 3개 분기점 : 유성, 공주, 당진
 - ※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연결

- 서천-공주간 고속도로는 서부여 IC 등 5개 나들목과 서공주JCT 등 2개 분기점으로 구성됨
 - 5개 나들목 : 동서천, 서부여, 부여, 청양, 서공주
 - 2개 분기점 : 동서천, 서공주
 - ※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연결

□ 고속도로 개통효과

- 국토해양부는 두 개의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연간 2,747억 원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량도 연간 9만여톤을 줄이게 돼 194억 원의 환경개선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발표하였음
- 또한 충남권에서 서해안, 호남, 경부, 중부내륙, 청원-상주 고속도로가 동서로 연결돼 남북축 고속도로의 교통 분산이 쉬워져 고속도로 교통 소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 두 개의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육, 의료, 문화 등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백제문화권, 서해안권, 충남내륙권의 관광, 산업, 물류단지 개발 등이 촉진됨으로써 지역경제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충남·대전권역의 교통소통 및 물류수송의 효율성 증대
 - 우리나라 6개 권역 중 고속도로 연장 1위(280m/1,000명)
- 서해안 지역 접근성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 이번 개통으로 당진-대전간 이동은 운행거리 25.4km/주행시간 1시간 단축
 - 또한 서천-공주간은 운행거리 17.3km/주행시간 40분 단축
- 충청권을 한 시간대 생활권으로 바꿔 놓은 이들 고속도로는 현재 하루 평균 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하며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기대

2) 고속도로 개통의 의의

□ 고속도로 개통의 일반적인 의의

- 고속도로 확장은 도로의 용량을 증대시킴으로써 기존도로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연계도로의 교통여건을 개선시켜 확장구간은 물론 주변도로의 교통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
 - 활발한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할 때, 여객 및 화물의 물동량이 증가하므로 고속도로 확장과 같은 교통여건 개선은 지역 내외의 경제 활성화를 가져옴

- 일반적으로 도로의 교통여건 개선으로 인한 효과는 개통 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며, 4~5년 이후 GDP증가 등 지역경제에 두드러진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국토연구원, 1999).

- 그러나 고속도로의 건설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선행 연구결과에 의하면 본래 개발 잠재력이 있는 곳은 고속도로 건설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국토연구원, 1999).

- 일반적으로 교통여건의 개선시 개선 전과 비교하여 혼잡구간 완화로 인한 주행시간의 단축, 차량운행비용의 절감효과, 교통사고 감소효과, 환경오염 저감 효과 등의 직접효과가 나타나며, 도로사업의 평가시 반영됨

- 관광객의 증가로 숙박 및 음식점소는 물론 관광상품 생산업 및 여행업, 운수업 등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2차 파급효과 발생이 기대됨

□ 당진-대전,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개통의 의의

- 두 개의 고속도로 개통은 당진, 서천은 물론 통과 지역을 중심으로 충청권, 수도권과 영호남권 등 타 권역과의 접근성을 개선시켜 이 지역의 토지이용 패턴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임

- 특히 수도권, 영호남권 등 타 권역과의 시간 및 공간거리가 단축됨으로써 물류비의 절감을 가져오게 됨. 타 권역과의 교류확대는 시장을 확대시켜 기존의 업체 및 신규입주 업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매출액을 증대시켜, 고용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됨

- 고용의 증대는 지역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게 되므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지역개발 측면 : 도시화 촉진, 국토이용 효율성 증진, 지역 분업 가속화, 지역격차 해소

- 충남 서해안·내륙지역의 관광, 문화, 지역개발, 산업·경제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
 - : 1차 영향권 지역 : 1개 광역시(대전), 4개 시·군(공주, 예산, 당진, 서천)
 - : 2차 영향권 지역 : 4개 시·군(청양, 홍성, 서산, 태안, 부여)

- 대전과 충남내륙 및 서북부권역간의 경제협력이 크게 기대됨
 - 특히, 대덕R&D특구와 충남 서북부권역간의 산업-기술교류 협력은 해당지역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이 가장 용이하게 시도할 수 있고 그 성과가 단기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요소로 생각됨
 - : 대전-충남 내륙권역간 관광·문화산업 발전 확대, 이용 촉진
 - 서산, 당진, 태안 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규모 유화업체와 철강업체들이 군집되어 있는 주요 산업도시로 부상 중이어서 대덕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기능의 연계가 기대됨

- 고속도로 개통은 그 동안 내륙권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던 낙후된 지역 내륙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할 전망이며, 특히 당진항의 국제항만시설을 활용한 수출 전진기지화에 용이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무엇보다도 운송시간 단축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제품 품질 향상은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효율성의 증진에 따른 물가의 안정화에도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

- 다만 우려되는 것은 장래 지역개발 확대에 따른 지역 고유성의 붕괴, 지역 간 교통망 확충에 따른 흡인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발전격차의 문제 등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3. 여건 변화와 향후 전망

1) 여건 변화

□ 공간적, 지리적 여건 변화

- 금번 양 고속도로의 개통은 대전을 포함하여 충남지역의 거의 모든 시·군을 1시간권 내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내의 인적, 물적 흐름을 원활하게 할 것임
- 특히 그 동안 지역간의 인적, 물적 흐름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아 왔고 이로 인해 지역 개발에 있어서도 큰 불이익을 받아왔던 충남 중서부 지역과 중남부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당진, 서천지역은 충북과 강원, 영남지역으로 부터의 접근성 역시 크게 향상되어 이들 지역과의 인적, 물적 교류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당진항을 중심으로 대충국 수출무역항으로의 발전이 기대됨.

□ 경제적 여건 변화

- 대전-충남지역의 경우 그 동안 경제의 발전축이 철도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경부축과 최근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당진, 아산, 서산 등 서해안축 등 남북축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음. 동서축의 경우 수도권 성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천안 아산과 서산 당진 등 충남 북부권역을 제외하고 거의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함. 이에 따라 대전충남 권역내에서도 동-서간 축은 북부축을 제외하고 낙후되어 왔으며, 특히 내륙권의 성장격차가 심하였음.
- 두 개의 고속도로의 개통은 그 동안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이라 할 수 있는 충남의 중서부 지역과 중남부 지역의 지역개발과 산업경제 발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 해당지역의 물류 수송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수송권역이 현재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낙후지역 산업 활성화 및 지역 간 산업연계 강화에 기여할 것임
 - 특히 고속도로 IC 주변지역은 시장으로의 원재료나 제품수송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거래 기업과의 근접성을 중시하는 기업들의 입지수요를 촉발할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산업여건의 긍정적인 변화로 인해 자칫 시·도간에 있어서 과다경쟁과 중복투자의 가능성도 예견됨
- 대전이 보유하고 있는 대덕을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기술과 연구개발 역량,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여러 지원기관과 시설·장비·인력, 최근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첨단업종의 벤처기업들의 다양한 성장 경험들이 금번 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접근성이 원활해진 충남 서북부지역의 산업클러스터와 연계되어, 이른바 초광역적인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그 동안에도 대전-충남은 초광역적인 산학연 협력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지리적인 단절로 상호간 효과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있어 왔음
- 이와 함께 입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충남지역 산업체의 제조업 지원서비스의 부족문제가 대전지역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상당 수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물류 여건 변화

- 고속도로의 개통은 고속도로 인접지역의 물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켜 물류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환황해경제권의 발전과 對중국 수출입 물류의 증대가 예상되며, 특히 당진지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중부 및 동·남부지역 대중국물류의 수출입 거점지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 장래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풍부하며, 향후 물류유통업이 전체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 영남권과 강원, 충북 등 타 지역으로부터의 대중국 항만 물류 역시 크게 증대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는 중간 물류기지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면서 물류단지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양 고속도로의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농축수산물에 대한 거래도 증가할 전망이며, 이와 관련한 저장·가공시설의 확충과, 유통체계의 개선이 요구됨

□ 문화, 관광적 여건 변화

- 부여, 공주를 중심으로 하는 백제문화 관광자원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과 중국의 타겟 관광패키지로서 매우 훌륭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교통접근성의 불편 등으로 인하여 신라의 경주 古都에 비하여 문화·관광적 요소가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음. 향후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전국에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함께 충남 서북부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는 내포문화권 활성화 역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과 중국경제의 성장으로 국제관광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도 서울, 제주 등 일부지역만을 중심으로 타겟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유한 백제역사·문화적 전통을 지닌 충청권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중추관문인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고속도로, 청주공항 등을 통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국내의 새로운 국제관광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 대전의 침복단지 유치가 확정되면 동북아 시장의 의료관광산업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이며, 청주공항의 활성화와 함께 당진항을 통한 항만 여객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역적으로 네트워크형의 도로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충청권의 다양한 관광·여가자원 중 상징성과 시장성을 함께 갖춘 핵심관광거점을 선정하여 육성하고, 초광역적인 협력속에서 충청권 통합관광권 설정, 관광루트 개발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대전-청주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학습형 문화·관광의 수요가 보다 촉발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도시 근교관광권 개발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임
 - 지역 내 관광수요 측면에서는 서천, 청양을 중심으로 근교 여가 관광지대로서 도시민의 휴식, 휴양, 여가를 위한 관광산업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임

2) 향후 전망

□ 대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축의 발전

- 지금까지의 『천안-당진』 간 충남북부 경제권, 『천안-대전』 간 경부축 경제권에서 그 동안 산업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던 충남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삼각축(◀)으로 발전 기대
 - 특히 질적 고도화가 필요한 서산의 석유화학산업과 대전의 첨단 화학산업이 융합되어 화학산업의 선진화가 기대되며, 당진·아산 등의 철강 및 기계 제조업과 대전의 IT가 결합한 융합인포메틱스산업, 첨단소재부품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태안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태양에너지 발전, 서산을 중심으로 조성중인 조력 발전 등과 연구단지의 R&D 성과가 결합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이 기대됨
 - 단, 지리적 근접성 외에도 이러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 노력이 부가되어야 함
-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식정보화시대에 기업 간, 산·학·연 간 상호교류에 의한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산업클러스터 형성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대덕의 과학기술R&D와 충남서북부권의 산업클러스터 간 연계가 가속화될 전망
 - 지속적인 기술혁신, 시장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간 기술혁신 및 기술 경쟁력 확보는 기업 간 협력과 제휴를 통하여 산업·기업 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개
 -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지역별로 전문화된 생산체계의 구축을 위한 지역 중심의 산업발전이 필요함

□ 생태관광을 추구하는 새로운 관광권의 태동

- 대전-서천 간 금강벚길과 고속도로 연결망을 통한 생태수로형 관광지 조성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금강을 중심으로 각종 수변 공원이 조성되고, 벚길이 열리면, 그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추진된 백제역사재현단지사업, 서천 철새도래지 관광지화 사업, 장항산단 국가대안사업, 대백제전 등이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됨.
 -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벚길과 고속도로가 연계되는 효과를 발휘함
- 대전의 과학을 소재로 하는 세계적 규모의 대형이벤트·축제와 연계, 大백제권, 부여 역사재현단지-서천 생태단지를 고리로 하는 관광권역을 설정하고 국제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적 관광자원인 백제권문화-대덕과학문화를 통합하는 과학문화 관광자원 개발 및 수요 증대
-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한 정시성 증대로,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여건 변화

□ 서해안 물류를 중심으로 한 동-서 물류축 중심지 변모

- 서해안 축과 향후 동해안 및 중남부 내륙권을 연결하는 물류 결절점 역할 수행
- 지금까지 <서천-보령-당진>을 잇는 서해안 고속도로, <대전-연기-천안>을 잇는 경부고속도로의 남북으로 통하는 양대 축에서 <당진-공주-대전>과 <서천-공주-대전>을 잇는 동-서 물류축 형성
- 장기적으로는 <공주-대전>의 결절점에서 동해안 물류축과 연결 확대

□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서비스산업 부각

- 서비스산업은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경제기여도와 성장잠재력이 높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향후 충남은 산업의 파급효과, 내부역량 및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를 전략서비스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 충남의 서북부 및 서남부, 내륙지역은 서비스 산업이 낙후되어 있음. 급속한 산업 및 경제의 성장과 함께, 특히 교육, 의료 기업지원 서비스 등 전문적인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낙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전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산업 연결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4. 발전 과제

1) 지역 간 소통의 원활화

- 지역 간 협력 발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지역민들의 의식을 긍정적으로 이끌고 해당지역이 서로 합심해서 상생의 방향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됨
- 고속도로 개통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후속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못지않게, 지역여론이 중심이 되어 지역민들간의 소통을 원활히 해나가고 지역 간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정부의 광역경제권 추진과 함께 동일 경제권 지역으로서의 동질감 형성을 위한 가시적 노력의 추진이 필요할 것임

- 후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다른 과제들에 비하여 소통의 문제는 그 효과가 단기적으로 가시화 될 수 있으므로, 이 가운데에서도 해당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지역의 문화적 교류 증진을 통해 지역민들 상호간에 보다 호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지역간의 소통의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행정의 앞서서 주도하는 방식보다는 지역의 여러 다양한 거버넌스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지자체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임
- 후속적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그 효과가 바람직하게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를 이끌어내고 상호 협력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례적인 조사·연구와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관리를 위해 지자체-거버넌스-지역전문가로 구성된 발전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선진 물류유통체계 구축의 기회로 활용

□ 물류증대와 관련, 후속적인 물류인프라 개선

-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물류 효율 증진이라고 볼 때, 기존의 지역물류체계의 재점검과 함께 후속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진항(평택당진항), 충남지역 산업단지들간의 접근성 증대에 따른 지역업체 물류유통 체계 개선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임
-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서는 고속도로 분기점을 중심으로 하는 중간물류거점시설을 확충함

-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시설의 차별화, 위계화를 통한 체계적인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함

□ 대도시-중소도시간 물적 위계를 연계하고 기능적으로 결합해 나감

- 지금까지 충남 서북부권과 수도권간의 물적 교류 중심을 ⇒ 일정 부분 대전대도시권과 연계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 대전은 중부권 거점도시로서 광역교통을 중심으로 중부권 물류유통의 중심기능을 강화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음
- 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대전은 서해안 배후거점도시로서의 물류유통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음
 - 두 개의 고속도로를 통해 당진·아산권과 군장권 개발에 따른 환황해권 배후거점도시로서의 물류유통 기능 강화, 광역 물류망 확충 필요함

□ 지역 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 간선 교통망 확충

- 도로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물류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사업의 효과성을 배가시켜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대산단지까지 고속도로 노선 연장임
-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권역 내·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분기점을 중심으로 연계 교통망을 확충, 정비함
- 대상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교통 취약지역 및 주요 개발자원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지역 간선교통망을 확충함
- 두개의 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포함한 기간 간선도로와 지역 간 도로의 연계교통망을 확충

3) 지역 간 산업경제 협력

□ 대전-충남 서북부권역간 제조업 협력 확대 방안 강구

-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대전지역의 제조업체와 과학R&D연구개발 성과가 충남 서북부권역(당진-서산)의 산업에 연결될 수 있도록 협력 모델을 개발 추진
- 대전-충남 서북부권역간 전략산업 협력, 산학연 협력 사업 확대, 인적교류 및 기술교류 확대
- 고속도로 개통으로 산업단지 수요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계기로 잘 활용해 나가고, 지역이 서로 상생의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함
 - 당진 등 서북부권의 입장에서는 대전 대도시권 접근성 제고로 교육, 문화, 의료서비스, 과학R&D를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변화를 활용하고,
 - 대전의 입장에서는 당진항, 인천국제공항으로의 접근성이 보다 용이한 방향에서 개선되면서, 그동안 공항, 항만 접근성 단점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된 장점을 최대한 활용. 지역으로의 기관, 기업투자 유치시 활용
 - 접근성 개선으로 대전의 용지부족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 그동안 대규모 기업의 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값비싼 지가와 물류비, 불리한 항만접근성 등이 공주 청양, 부여 지역까지 기업 입지 대상지역으로 확대되면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당진, 아산, 서산 등에 설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향후 천안, 대전지역까지 확대하여 수도권 대기업 및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

□ 과학R&D 및 기술 정보 교류 확대

- 해당 지역별로 대전이 보유하고 있는 과학R&D 및 기술정보 공유 확산을 위한 협력 사업을 전개해 나감

- 과학R&D 및 기술정보교류 증진을 위해 대전-충남도 두 광역지자체와 대전-충남의 두 테크노파크가 중심적인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온라인 오프라인 성격의 다양한 방식 구상
- 특히 대전과 충남 북서부 경제권간의 기술정보교류 증진을 위해 이들 지역간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포럼 등 정례행사를 우선적으로 진행

□ 지역 간 혁신자원, 요소의 결합 및 공유 확대

- 지역별 산업군집을 형성하고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함
- 산업체·대학교·연구소간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정보·인력·기술을 교류하고 지역 관점에서의 지역혁신체계를 보다 명료하게 구축해 나감
 - 집적된 산업과 연구개발지원기관 간 연계를 통한 지식기반 산업화를 촉진함
 -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지식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도모함

□ 인력 공급 시스템 구축

- 고급 전문기술인력, 중간기술인력, 기능 및 저급기술인력 등 다양한 기술인력 배양, 공급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시스템 마련
 -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관련분야 산학연 협력사업 전개
- 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산학협력 체계를 강화함
 - 취업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산업계와 협력하여 신규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취업 프로그램을 협력적으로 활성화해 나감

□ 농수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

- 농수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보화기반 및 생산지원 기능을 확충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항만 및 고속도로 IC 인접지역에 생산·물류시설을 갖춘 농수축산업 지원 거점을 조성함
- 생활수준 향상과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점차 고기능성 식품이 요구되므로 농수축산업을 첨단화하고, 이를 활용한 기능성, 바이오, 친환경적 식품개발을 해당지역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원함
- 도농직거래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지역별 특화작물의 생산 유통을 확대
 -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통전문 생산자단체 육성
- 지역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및 축산물 거래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품질 고급화를 위한 협력 사업을 전개
- 대전-충남을 묶어서 “우리 농산물”로 취급 생산자-소비자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에 대하여 대전지역에서 우대하여 유통될 수 있는 환경 마련
 - 대전-충남의 농협중앙회가 중심이 되어 생산-유통과정에 있어서 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예 : 생산, 가공 및 유통을 총괄하는 생산자단체 육성 등)

4) 문화·관광 수요 증대와 개발 여건 조성

- 백제문화, 내포문화, 대도시문화 수요증대를 위한 후속 사업 추진
 - 그 동안 미루어온 국가지원 문화권 개발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서둘러 진행

- 전통 문화 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역사문화 정체성 확보
 - 충남지역의 문화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보존을 위한 연차적 발굴 및 정비사업 추진

- 도로망 체계 개선에 따른 문화권역 재설정 필요성 검토

- 대도시 고급·대중화 문화 접근성을 제고 : 대전의 문화, 여가, 위락시설 활용. 스포츠(프로 야구, 프로축구), 문화(예술의 전당, 미술관, 극장, 공연장), 과학·컨벤션시설(국립중앙과학관, 엑스포과학공원, DCC), 여가·위락(동물원, 여러 가지 박물관), 쇼핑문화, 젊은층 문화를 대상

- 중부권 중심도시로서 대전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기능과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응책 강구
 - 시간단축에 따라 대전지역으로 전문품, 고급서비스, 고급문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목적 방문(Multiple Purpose Trip) 증가
 - 지역의 물류 유통 활성화 기대, 문화·이벤트 관련 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내방객을 위한 시설 이용의 편의 확대

- 특히 대전-충남지역 역사 관광·문화상품을 통합, 광역적인 상품화로 국내외 이용자 증대 등 시너지효과 극대화 전략 마련

- 대전-충남 관광벨트 구상(인바운드형 : 외국관광객(중국·일본) 대상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홍보)
 - 이를 위해 대전-충남 통합 관광CI 개발 적용
 - 가족단위 당일 및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공주-청양-예산-당진 ◇공주-부여-서천) 홍보

- 지역특성을 살린 해양관광기반의 조성
 - 개성화 관광시대(SIT)에 대비하여 서천지역을 중심으로 해양 휴양자원과 문화·생태자원 등 지역자원의 특성을 살린 관광자원의 개발

5. 맺음말

- 이 글에서는 두 개의 고속도로 개통이 해당 지역과 충청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전망하면서 충청지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효과가 가시화 되고, 그에 따라 산업·경제적인 발전은 물론이고, 지역문화의 성숙된 변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전과제들을 살펴보았음
-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와 서천-공주간 고속도로는 지역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 대전으로서는 공장 용지 등 입지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용지를 가진 인접지역이 확대되는 효과와 함께, 교육서비스산업, 의료서비스 산업, 기업지원 서비스 산업, 물류서비스산업 등 각종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임. 또한 당진항과의 연결을 통해 지역 경제성장과 기업유치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온 항만 인프라의 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충남으로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해소할 수 없었던 지역적인 '삶의 질'(QOL)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수도권 인력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당진항을 대중국 핵심 거점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대중국 수출입 물량은 향후 당진항을 통해 거래되어 당진-대전간 고속도로를 통해 경부축 및 동해안축 또는 내륙권으로 연결될 수 있어 대규모 물류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이러한 산업적 장점을 최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가시화 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충남 서북부지역의 중후장대형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과 대전의 핵심부품 개발 중소기업, R&D 기업 및 연구소 등을 연결하여 각종 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대정부 설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임.
 - 특히, 녹색성장산업으로 분류되는 바이오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을 연결하는 시도로 신소재산업클러스터육성사업과 서해안의 조력발전, 태양광발전과 내륙 및 대전의 R&D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육성사업 등을 구체화 할 경우 향후 21세기 경제거점으로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당진, 아산, 서산 등에 설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향후 천안, 대전지역까지 확대하여 수도권 대기업 및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이러한 산업적 노력과 함께, 충청광역경제권 사업의 추진을 계기로 지역 내 동질감 증대를 위한 각종 문화적 노력의 경주가 필요할 것임.
 - 각종 교류행사의 개최, 지역농산물의 권역 내 소비를 위한 지산지소 운동, 관광자원의 교차이용 확대, 축제 등의 공동개최, 해외마케팅의 공동추진 등이 효과가 있을 것임
-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장래 지역개발 확대에 따른 지역 고유성의 붕괴, 지역 간 교통망 확충에 따른 흡인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발전격차의 문제 등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경주 또한 중요한 문제임
- 시원스럽게 뚫린 고속도로와 같이 충청권의 발전이 거침없이 전개되어 21세기 행정의 중심지로서 뿐 아니라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날을 기대해 봄

〈참 고 문 헌〉

- 건설교통부, 「도로백서」, 1997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2000
- 경남발전연구원,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주변지역 파급효과 분석」, 2001. 12
- 국토연구원, 「고속도로 사업효과 조사」, 국토연구원(95-27), 1995
- 국토연구원, 「도로사업 투자분석기법 정립」, 한국도로공사, 1999
- 대전광역시·대전발전연구원. 2007, 「대전경제발전 중장기계획 : 2007-2016」
-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 「충청권 공동발전방안 연구」, 2000. 7
- 조남권, 「영동고속도로 확장개통에 따른 동해안권의 변화전망」, 2001
- 충청남도,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2008
- 한국도로공사 웹사이트(www.freeway.co.kr)